中國 延邊地區 朝鮮族의 住居空間 및 生活方式*

龍井市 智新鄕 長財村을 대상으로

姜榮煥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中國 東北地方 朝鮮族 마을과 주거에 관한 현장연구의 일부로서 주생활 및 주거공간 이용에 관한 분석적 연구이다. 중국의 동북지방은 遼寧省과 吉林省, 黑龍江省을 포괄하는 지역으로서 19세기 말경부터 조선족의 移住와 定着이 이루어진 곳이다. 특히 함경도와 인접한 延邊地區[1]는 주민의 40%이상이 조선족으로 1952년 이래 朝鮮族 自治州를 형성하여 왔다.

모든 移民의 역사가 그러하듯 동북지방으로 移住한 조선족들도 異質環境으로의 적응과 정착의 과정을 겪게 된다. 따라서 현재 보여지는 그들의 문화는 한반도로부터 이동하여 전수된 朝鮮民族(韓民族)[2]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異質 生態系에 적응과정에서 변질된 문화, 중국사회의 異質文化와 접촉을 통한 변화, 그리고 중국의 사회적 변동기에 겪었던 시대적 변화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住居를 文化의 한 領域으로 간주할 때, 그들의 住居文化 또한 移住에 따른 적응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그들의 주거는 그들이 한반도에서 가지고 들어 온 朝鮮民族 주거문화의 속성이 전수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유지, 보존되었을 것이며, 낯선 생태계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文化特質 중 일부가 변질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필연적으로 異民族 특히 중국사회와 접촉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접촉변화, 그리고 중국의 사회적 변동에 따라 이루어진 시대적 변화를 겪게 되었을 것이다.[3]

이러한 조선족 주거문화의 성격은 韓國 住居史 또는 韓國 住居文化를 연구함에 있어 연구대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그들의 대부분이 북한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왔기 때문에 북한지

* 본 연구는 199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한 '92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인 "중국동북지방 조선족 취락 및 주거에 관한 조사연구"의 일부임.

1) 연변지구란 길림성내에서 함경북도와 인접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말한다.

2) 韓民族이라는 명칭이 보편적이기는 하나 漢民族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朝鮮民族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3) 주거의 형태나 그 이용방식이 자연 및 사회·문화적 환경, 생업, 기술상태 등 생태적 조건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권이구, 「전통적 생활양식의 생태학적 측면」, 『전통적 생활양식의 연구(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24-26쪽 참조.

역 주거문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로서 접근이 불가능한 북한지역의 주거문화에 대한 간접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학문분야에서 연구영역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異質環境과 사회에 적응하는 가운데 유지되거나 변질된 文化屬性을 통하여 한국 주거문화의 正體性과 適應性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의 改革·開放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급속하게 변모하는 주거문화의 속성을 가짐으로써 주거의 근대화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넷째, 중국 동북지방은 향후 21세기에 교역의 중대가 가장 기대되는 지역으로서 그들의 주거와 생활방식은 한국이 주택건설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것으로서 총체적인 주거문화 중 주생활 및 주거공간의 이용부분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단위주거를 사용하는 가족집단으로서 家口의 사회·경제적 성격과 생활무대로서의 주거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생활행위 등이다. 이러한 대상을 通時的인 관점으로 파악하여 그들의 주거문화가 移住時期로부터 현재까지 현지의 자연환경이나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 연구의 실증적 대상은 中國 吉林省 龍井市 智新鄉 長財村으로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안에 속하는 조선족 농촌마을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993년 1월의 예비답사를 비롯한 동년 7월의 현장조사, 그리고 1994년 2월의 보완조사 등이 이루어졌다. 이 현장조사에서 주거형태에 대한 실측조사와 조사표에 의한 인문조사, 주민들과의 면담, 참여관찰 및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의 자료는 주로 인문조사표라는 공식적 면담지를 통해 얻어졌다. 인문조사표는 가족구성과 연령, 직업, 취침장소에 대한 문항과 경제형태에 대한 문항, 주거설비와 가재도구에 대한 문항, 생활과 공간이용에 대한 문항, 농작업에 대한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회수된 조사표는 모두 109호로서 전체 112호 중에 97%의 회수율을 보여주었다.[4]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家口의 사회·경제적 성격을 분석하였고, 주거내에서 이루어지는 생활행위로서 공간의 이용방식을 분석하였으며, 주거시설 및 가재도구의 이용현황을 파악하였다. 한편 관련문헌과 주민들과의 면담을 이용하여 시대적인 변화추이를 추적해 갔으며, 한반도와 비교함으로써 정체성과 적응성을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실증적 대상이 장재촌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대상의 특수성에서 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장재촌이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주거상황과 비교하여 조사·분석되지 못하였고, 순수한 조선족 마을이기 때문에 漢族住居와 비교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가 가지는 범주는 연변지구내 조선족 농촌마을로 제한되고 있다.

2. 長財村 家口의 社會·經濟的 性格

2-1. 家口의 社會的 性格

1) 장재촌의 형성과정 및 사회적 변동

중국 東北地方으로의 조선족 移住는 1860년대 한반도의 北方六鎭에 大水災가 발생하여 대량 유민이 발생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1860년대 당시 간도지방의 조선족 인구는 약 77,000명으로 알려져 있다.[5] 당시 淸朝는 동북지방에 封禁政策을 썼기 때문에 조선족의 越境은 심한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1881년 봉금정책이 해제되고 1885년(光緖 12년) 두만강 이북, 해란강 이남의 길이 700리, 너비 60리에 걸친 지역이 조선족의 개간지역으로 확정됨으로써 본격적인 이주가 이루어졌다.

장재촌도 이 때부터 형성되었다고 보여진다. 이들

4) 본 논문에서 통계로 적시된 표나 수치는 회수된 조사지를 근거로 한 것이다.

5) 최창래 외 2인: 『延邊人口與計劃生育簡論』, 延邊人民出版社, 1989, 771쪽.

이 이주한 경로는 함경북도 會寧에서 三合을 거쳐, 장재촌이 소속되어 있는 智新으로 향했고, 이로써 龍井, 延吉 등에 이어졌다고 한다.[6] 이러한 이주경로로 볼 때 용정이 1883년에 개척되었다면 장재는 그 이전에 이미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추정된다.[7]

마을 노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개척당시 장재촌에는 漢族인 董漢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술칸'(양조장)과 '기름칸'(콩기름짜는 곳)을 하고 있었는데, 조선족들이 그의 토지를 개간하거나 일꾼으로 일하면서 정착했다고 한다. 조선족들은 밀림지역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고, 이로써 富를 축적하여 조선족 마을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의 경제력이 확대되고 그 수가 늘면서 董家는 고립되었고, 쫓기다시피 마을을 떠났던 것으로 알려진다.[8] 마을 주민들은 동가가 떠난 이유를 '생활습관이 맞지 않고 고립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당시 주민들의 생활문화가 중국과 다른 조선족의 고유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동가가 떠난 시기는 1900년대 초로 기억되고 있는데, 이는 장재가 완전한 조선족 마을로 정착되었음을 의미한다.

장재촌이 조선족 마을로 형성된 이후 주민들이 겪은 사회적 변동을 그들의 생활경험을 통해 분석하면 대략 세 시기로 나뉘어진다. 주민들이 '解放以前'이라고 부르는 시기는 실상 신중국의 성립 이전까지의 시기로서 이때까지 장재촌은 한반도의 전통적 생활문화를 원형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배경으로는 첫째 이주지의 생태환경이 한반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 둘째 동가가 축출된 이후 주민들이 완전히 조선족으로만 구성되어 중국인과의 교류가 적었다는 점, 셋째 일제시기에도 생활방식을 바꿀만 한 강제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 넷째 개척지를 넓혀가면서 농업생산을 통해 급속히 경제적 자립을 이루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9] 해방 이전까지 지속되었다고 하는 동제 등의 마을 공동체의 행사나 제례, 상례, 혼례 등의 전통적 의례만 보더라도 생활문화의 완벽한 이동과 지속성을 증거하고 있다.

新中國의 성립 이후문화대혁명이 끝난 때 까지를 주민들은 '集體化 時期'라고 부른다. 이는 토지개혁과 인민공사의 설립, 그리고 문화혁명으로 인한 사회혼란을 포괄하여 집체적 생활방식의 시기로 이해한 것이다. 1948년 토지개혁으로 인한 부농·지주의 축출 및 사회적 관계의 변화, 인민공사의 설립과 집체영농의 강요, 특히 문화혁명시기의 경제적 침체와 사회적 혼란은 주민들에게 극히 부정적인 시기로 기억되고 있다. 이 시기에 개인적 소비를 위한 농사 및 생산활동이 금지되었고, 남녀 평등이 강요되었으며 조선족 공동체의 주요 생활양식과 의식을 대표하는 마을 협동조직이나 의식도 봉건적 잔재 또는 지방 민족주의적 유물로 간주되어 모두 폐기되었던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下放活動으로 上海, 長春, 龍井 등지에서 이 마을에 100여명의 학생들이 들어왔다가 1979년에 모두 떠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마을 주민의 대부분은 초기 移住民의 후손으로서 氏族마을의 형태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1981년 개혁 · 개방이 이루어진 이후를 주민들은 '個體 以後'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호구에 따라 배분된 토지의 개인경영과 그 수입의 자유화를 의미하는 이른바 '호도거리제도'가 실시되어 개체영농에 따른 사회적 변동을 의미하고 있다. 個體營農은 생산 의욕을 고취시켜 경제에 활력을 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혁명시기에 강요되었던 집체적 생산과 생활방식을 해제함으로써 조선족 생활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6) 심혜숙 : 『중국 조선족 취락지명과 인구분포』, 연변대학출판사, 1992, 38쪽.

7) 1924년 이 마을에서 출생한 리종순씨의 부친이 2세 때 함경북도 명촌에서 장재촌으로 왔다는 증언으로도 장재촌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1800년대 말로 추정됨.

8) 마을주민 리종순(71세), 림춘(63세), 김재현(76세), 천봉진(72세)과의 대담.

9) 리종순씨(71세)의 기억에 의하면 일제초기에 마을에는 약 40여호가 있었고 그 중에서 15호가 기와집으로서 인근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마을로 꼽혔다고 한다.

이와 같이 장재촌은 1890년대로부터 조선족의 이주가 이루어져, 여러 차례의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씨족마을의 성격을 갖는 조선족 마을로 正體性을 이루게 되었다. 외부로부터 강요된 사회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의 생활문화가 유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을 주민들이 순수한 조선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과 마을 구성원들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 마을주민들의 사회적 유대가 견고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생활문화는 중국의 사회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의 순수성이 큰 맥락으로 지켜지는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2) 마을주민의 사회적 관계

마을형성의 초기로부터 장재촌은 순수하게 조선족만으로 구성되어 왔다. 물론 조선족의 이주 이전에 漢族인 董漢이 이 지역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조선족의 성장과 더불어 축출되었고, 문화혁명기간중에 타지의 학생들이 잠시 머문 것을 제외하고는 타민족이 거주한 증거는 없다.

개척시기의 조선족은 全州 李씨와 金海 金씨, 尹씨 등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전주 리씨가 가장 우세한 성씨였다고 한다. 일제초기에 이 마을에는 약 40여호가 있었고 그 중에서 리씨 일가가 17호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후 여러 차례의 사회적 변동을 겪으면서 축출되거나 유입된 가구도 있었으나 마을주민의 대부분은 초기 이주민의 후손들로서 세간을 내어 호수를 늘려갔다고 한다.[10]

주민들의 이주와 정착과정에서 보여지듯이 이 마을의 주민들은 대부분 이주 초기의 후손들로 구성되고 있다. 주민구성을 변동시키는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도 비교적 정착성이 강한 씨족마을을 유지한 셈이다. 다만 초기에 우세했던 리씨, 김씨, 윤씨 중에서 윤씨 가문만이 쇠락했을 뿐, 리씨와 김씨는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은 가구수를 가지고 있다. 인문조사표에 나타난 호주의 성씨를 분석하면 김씨가 28호, 리씨가 22호, 그리고 신씨와 류씨가 각각 7호, 현씨가 5호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다만 윤씨는 현재 2호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호주의 성명이 부인으로 기록된 가구수를 합하면 그 편중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각 同姓간의 사회적 관계는 거의 친족관계로서 이들이 세간내기를 통하여 중대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회계와의 면담에서 나타나는 호주간의 인척관계 중에서 父子, 또는 兄弟관계의 사례만 보더라도 30건을 넘고 있다. 또한 마을내에서 결혼을 통하여 他姓간에 맺어지는 사돈관계도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이는 마을전체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인척관계로서의 사회적 유대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마을 주민의 대부분이 오랜 동안 친족관계로 유대를 가져 왔다는 것은 친족관계가 없는 他姓의 이주를 어렵게 했을 뿐 아니라, 특히 한족의 진입을 막는 주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실제로 이 마을에서는 정착초기에 董家가 떠난 이후 단 한명의 漢族도 받아드리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또한 주민의 대부분이 한족에 대해 생활관습의 차이만이 아니라 지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생활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족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도 작용했지만, 한족이 정착함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르는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우려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董家의 고립과 이주에서 보여지듯이 조선족의 사회적 유대가 공고한 이 마을에서 한족의 정착도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다.

한편 村民委員會와 분회의 존재는 他姓이나 漢族의 진입을 막는 제도적 장치로서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다.[11] 마을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갖는 이 기구들은 신입자의 입주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로서 입주를 제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이 마을은 주민 대부분이 친족관계로 이루어진 순수 조선족 마을로서 그들의 생활문화를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 보존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12]

10) 리종순씨와의 면담.

11) 촌민위원회는 회계, 촌장, 부녀주임, 기업공장장, 치보주임 등 마을유지들로 구성된다.

12) 마을노인 중에는 아직도 漢族 말을 모르는 사

3) 인구 및 가구의 구조

1980년대 이전에 장재촌 인구나 가구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민들과의 면담에 의하면 일제초기에 약 40호가 있었다고 한다. 이후 인구 유입이나 分家를 통하여 家口를 증대시켰는데, 1930년대에 이주한 김재현(76세)씨에 따르면 당시에 100여호 정도가 살았다고 하니, 이들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구 및 인구의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13] 중요한 것은 외부인구의 유입보다는 주로 초기 이주민들의 후손들로 인구의 팽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해방 이후 한반도로의 귀국이나 타처로의 이동, 인근지역 주민의 유입 등이 있었으나 인구증감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고 한다.

마을에 비치되어 있는 호구등기부에 따르면 장재촌의 총인구수는 406명이며 가구수는 112호로 등재되어 있다. 이 수치는 1982년의 제3차 전국인구보사통계에 기록된 총인구 551명(남275,여276)과 약 150명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통계가 정확한 것이라면 지난 12년간 25%에 가까운 인구감소를 보여준다. 그러나 가구수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아 1982년 당시 126호에서 현재 112호로 14호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가구당 가구원수의 감소가 아니라면 인구감소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家口當 家口員數를 보면 1982년 4.37명에서 1993년 3.62명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1993년 현재 4인 이하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구원수의 감소는 1980년대 이후 보편화된 산아제한에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인문조사표를 근거로 분석된 연령별 인구분포를 보면 아동세대(0-9세)가 극히 적고 10대에서 50대까지는 비교적 균일한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 10대 이하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된 것은 1962년 이래 중국정부의 '生育計劃(산아제한 정책)에 대해 조선족의 적극적이고 자속적인 호응에 힘입었다고 설명되어 왔다. 현재 조선족은 두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한명의 자녀를 가진 후 斷産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14]

그러나 주민들은 이러한 현상이 개체 이후, 즉 1980년대 이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개체영농이 시작됨에 따라 각 家口의 수입이 능력에 따라 차이를 갖게 되었고, 제한된 토지와 노동력으로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녀의 출산과 육아, 교육에 소요되는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집을 보내거나 살림을 낼 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며, 이로써 마을인구가 지난 10년간 감소해 왔다는 이유가 설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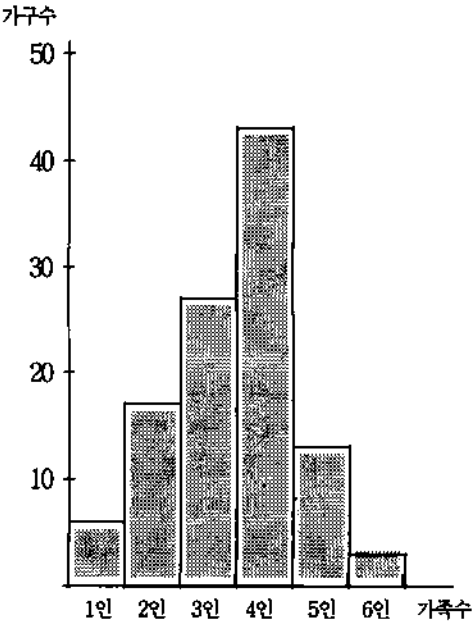

그림 1. 가구당 가구원수의 분포

해방 이전까지 장재촌의 가족형태는 擴大家族이나 直系家族의 형태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富農들은 심지어 四寸까지 한집에 살았다고 증언한다.[15] 가족구성원 이외에도 일꾼을 두는 경우도 있

람이 있다.

13) 다른 증언자에 의하면 당시에 80여호가 있었다고 하나 그렇다고 해도 2배의 가구증가를 보여준다.

14) 한상복 · 권태환 : 『중국연변의 조선족』, 서울대 출판부, 1993, 71쪽.

어 부속채로서 '객사랑'이 필요했다고 한다. 이러한 가구구성은 토지개혁 이후 부농 · 지주의 축출에 따라 해체되었고, 가족형태도 경제단위의 재편성에 따라 직계가족으로 이행하였다고 보여진다.

個體化 이후 가족형태는 점차 부부가족으로 이행되어 왔다. 주민들은 개체화 이후 장·차남을 가릴 것 없이 결혼 이후에는 세간을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姑婦간의 갈등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상은 경제적인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결혼한 세대는 '단위'[16]로부터 宅地를 제공받을 수 있어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부부가족 형태는 전 가구의 80% 정도에 달하고 있다.(표 1) 물론 약간의 직계가족 형태도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자력생활을 하기 어려운 부모를 모시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택을 단위로 하는 가구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부모나 아들 가구를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부분의 父子家口가 결국 한 마을 안에 있기 때문에 가족의 유대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식사를 같이하는 경우가 쉽게 목격되었다.

또한 부부가족으로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부부사이의 전통적 가족관계는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주거내의 가사노동은 주부가 전담하고 있으며, 가족의 대표권이나 제사권 등을 포함하는 家父長權이 家長이라는 이름과 함께 존속되고 있다. 또한 식사나 취침시에도 부부가 별도의 자리를 갖는 것도 쉽게 목격된다. 이는 집체화시기 남녀평등이 강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체화와 더불어 쉽게 복원될 수 있었던 전통문화의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2-2. 家口의 經濟的 性格

1) 생업형태

연변의 조선족 농촌들이 모두 그러하듯 장재촌의 경제도 개척기로부터 완전히 농업에 의존해 왔다.

15) 리종순, 천봉진씨와의 면담.

표 1. 가족유형별 빈도수

가 족 구 성	세대수
1인	6
부부(+자녀)	87
부모+부부(+자녀)	12
부모+부부+형제(+자녀)	4

이곳으로 이주한 조선족의 대부분이 농민들이었고 조선에서의 흉년으로 새로운 농경지를 찾아 이동하였기 때문에 농사가 주업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주 이후중국의 사회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농업이라는 생업형태는 변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현재까지도 농사를 專業으로 하는 農家가 94호로서 마을전체 가구 중 90%를 차지하고 있다. 개체화 이후마을내의 몇 가구가 철공소, 정미소, 기름칸, 국수공장, 상점 등의 개체기업을 경영함으로써 겸업농으로 전이하는 추세를 보여주기는 하나 아직도 전업농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다.

표 2 생업유형 빈도

전업농	겸업농	기타	미조사
94	9	3	3

마을에 비치되어 있는 '科技檔案'[17]에 의하면 전체 경작지는 水田(논)이 17상(口尙; 헥타아르), 旱田(밭)이 175상으로 밭농사가 월등히 많다. 즉, 경작지 면적상으로 볼 때 한전 위주의 농업구조를 가진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경작 내용으로도 쌀이 15상, 담배가 70상, 콩이 40상, 그리고 옥수수가 40상으로 담배가 가장 중요한 작물이다. 쌀은 자급자족

16) 여기에서 단위란 과거 인민공사시절의 영농단위로서 현재에도 마을 자치조직의 기능을 하고 있다.

17) 마을의 정황을 수록한 공문서.

정도의 경작규모를 가지며, 대부분의 주소득은 담배, 콩, 옥수수 등의 경제작물 재배로부터 얻어지고 있다.

이러한 농업구조는 1983년 호도거리 제도 시행 이후에 변화하는 조선족 농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1980년대 이전 인민공사 시절에는 모든 생산과 분배가 단위(개별 인민공사 또는 대대)에서 관장하였고, 개인적 소비를 위한 농사나 활동이 일체 금지 되었었다.[18] 이에따라 지정된 작물의 재배(조선족의 경우 대부분 쌀)만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호도거리 제도의 시행 이후 개인적인 소득증진을 위해 경제성이 있는 작물의 재배나 가축의 사육등을 통해 농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장재촌의 경우에 주소득 작물은 담배로서 마을 주위에는 물론 집안의 마당에도 담배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텃밭 이용의 극대화는 개체화 이후 변화하는 농촌주거의 공간이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마을에서 기르는 담배는 '독초(獨煙)'라고 불리우는 햇볕에 널어 말리는 종류이다. 다른 지방에서는 불을 때어 말리는 '黃煙'을 주로 기른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 담배농사는 손이 많이 들어가는 대신 수입이 좋은 작물로 인식되고 있다.[19]

비록 한전이 압도적으로 많고 담배와 같은 경제작물로부터 소득의 대부분을 얻고 있다고 해도 쌀농사는 포기되지 않고 있다. 농가의 대부분이 0.5상 미만이라도 수전은 반드시 가지고 있다. 이는 쌀에 대한 조선족의 특별한 정서를 보여준다. 조선족은 만주에서 최초로 수전을 개간하였고 쌀농사를 시작하였다. 이 지역에서 조선족과 쌀농사는 동일시되고 있으며, 조선족의 독점농업이 되어 있다시피하다.[20] 과거 쌀이 주소득 작물이었다는 사실을 배제하더라도 쌀을 주식으로 삼는 식생활, 쌀에 대한 민족적 정서 등의 이유로 쌀농사는 쉽게 포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21]

가축의 사육은 이 마을에서 중요한 부업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표 3)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가구당 소 1.27, 돼지 1.72, 닭 8.82, 오리 1.63 마리 등을 사육하고 있어 1990년 조사된 연변지역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소는 일소로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타의 가축은 단순히 가정에서 잡아먹으려는 이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본격적인 축산업은 아니지만 가축을 상품화하여 農外所得을 올리려는 것이다.[22] 가축사육의 활성화는 축사의 신축을 비롯한 주거공간의 변화만이 아니라, 마을안 도로에 방목이 이루어짐으로써 마을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표 3. 가축사육현황[23] (단위 : 마리)

	전체 마리수	가구당 평균	연변 평균
소	136	1.27	0.95
돼 지	184	1.72	1.74
닭	944	8.82	4.4
개	41	0.38	0.55
거 위	77	0.72	0.09
오 리	174	1.63	0.07

장재촌 가구들의 영농을 위한 농기구의 수준은 아직 기계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대부분의 가구가 手勞動力을 이용하는 한전 제초기(김매는 기계), 파종기, 후치기(쟁기), 우마차용 수레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전기의 보급으로 전동 자초기나 탈곡기 등이 보급되었고, 경운기 등의 동력 기계도 보급되어 빠른 속도로 농

18) 한상복, 앞책, 156쪽.

19) 토지 1상당 담배는 9000원, 콩이나 옥수수는 4000원 정도의 연 수입을 올린다고 한다.

20) 한상복, 앞책, 185-186쪽.

21) 주민들은 쌀을 재배하는 이유가 사먹자면 비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22) 김룩선씨의 경우 소 10마리, 돼지 10마리, 닭 10마리, 오리 20마리, 개 10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수달이나 토끼 등 특수한 동물도 사육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23) 연변평균은 연변지구 1450호에서 산출된 것임.

업 기계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농업 기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은 개체화 이후 가구별 농가구의 소유가 허용되고 생산의욕이 고취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집체화 시기에는 집체단위의 영농으로 가구별 농가구의 소유가 필요하지 않았다. 개체화 이후 가구별 영농이 허용되면서 농가구의 소유와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이에따라 농가구의 수장을 위한 공간이 새롭게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 또한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가계 소득과 소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재는 개척시기로부터 해방 이전 까지 상당한 경제력을 축적하여 智新鄕 일대에서 가장 부유한 마을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해방 이후 집체화가 이루어지면서 부농지주의 해체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당한 경제침체가 이루어졌다. 집체단위의 영농으로 생산의욕이 저하되었으며, 재배작물의 제한, 가축 및 텃밭의 개인경영 금지 등 경제활동이 제한됨으로써 경제력 축적의 기회가 박탈되었던 것이다.

1980년대 호도거리 제도가 실시 되면서 장재촌은 새로운 경제 도약기를 맞이하게 된다. 각 가구는 배분된 토지를 마음대로 경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텃밭의 경영과 가축사육으로 가계소득을 늘려 나가게 되었다. 특히 담배의 재배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지만 고소득 작물로서 장재촌 가구의 주소득원이 되었던 것이다.

인문조사표를 근거로 산출된 장재촌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규모는 6972원에 달하고 있다. 소득의 분포를 보면 5000-9000원 사이가 가장 많고, 10000원이 넘는 가구도 25호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가구당 평균 한전의 규모를 1.56상으로 계산할 때 담배재배만으로 얻어지는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약 1만 5천원으로 산출된다. 즉, 인문조사표에 나타난 수치보다는 훨씬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여하튼 이러한 소득규모는 1990년 연변 29개 농촌마을의 1450호 조사에서 나타난 연평균 농가수입 1209원[24]에 비하여 6배정도의 수치를 나타낸다. 더구나 도시가구의 소득을 상회하는 수치로서 장재가 농촌마을이면서도 상당한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민들도 마을의 경제력에 대해 크게 자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력이 마을의 가구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내에서는 영농규모나 재배작물, 영농기술의 차이, 그리고 개체기업경영 등으로 가구별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인기업을 겸업하고 있는 김씨 댁의 경우 연평균 소득이 5만원에 이르고 있어 마을 평균소득과는 몇배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소득격차는 생활수준의 차이를 유발하고 있으며, 小農들을 도시로 유인하는 잠재적 요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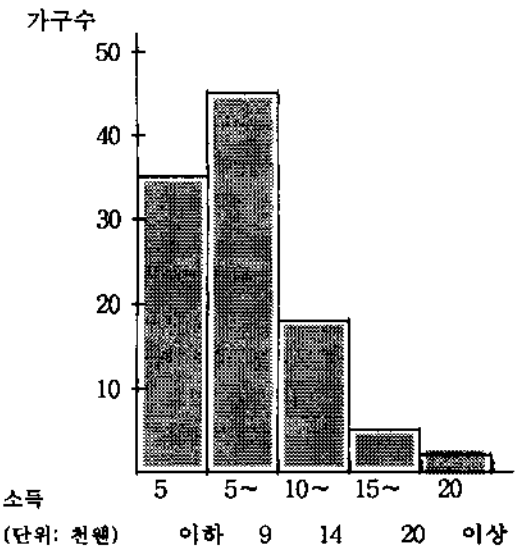

그림 2. 가구당 연소득의 분포

마을내의 각 가구에 대한 가계소비가 전체적으로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한 가구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가계소비의 형태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30대의 허씨는 지난 해에 우박피해에도 불구하고 8000원(元)의 소득을 올렸는데, 영농비로서 800원, 부식비 500원, 의류비 700원, 가사비 100원, 광열비 200원, 공과금 400원, 위락비 300원, 부조금 500원 등

24) 한상복, 앞책, 194쪽.

일상적 소비로 3500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산비 2000원, 장식장 2000원, 텔레비젼 2000원 등 특수한 지출로 6000원을 지출하였다.

이러한 소비형태에서 볼 수 있듯이 식비는 거의 자급자족에 의존하고 있고, 가사비나 광열비 등 가정생활에 소비되는 비중은 극히 낮다. 반면에 장식장이나 텔레비젼 등 새로운 가재도구 구입에 투자되는 비용은 소득의 반을 차지 할 정도로 높다. 즉, 소득의 상향에 따라 문화생활의 수준을 높여 가려는 욕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욕구로부터 도시로 진출하거나 자급자족식의 영농에서 기업농으로 전이해 가는 추세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3. 住居空間의 構成과 利用方式

3-1. 생활무대의 구성

1) 解放以前

해방 이전장재촌 주거의 모습은 함경북도의 그것과 거의 일치했던 것으로 믿어진다. 주민들은 주로 함경북도로부터 이주해 왔기 때문에 함경도 집을 표본으로 지었고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한다.[25] 실제로 건립연대가 오래된 장재촌의 주택들은 일제시기에 小田內通敏(1923), 野村孝文(1933)등이 조사. 채록한 함경도 지방의 평면[26]이나, 그 이후 북한학자 리종묵(1961)이 조사한 함경도 양통집의 모습[27]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함경도 민가의 특징은 間이 두줄로 배열된 양통집이라는 점과 생활무대의 중심공간으로서 정지(또는 정주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타 지역 민가와 辨別性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이외에도 부속채의 결여, 생산공간의 살림채내 부속, 대문과 담장의 허술함 등 남부지방과 대비되는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주로 입지환경의 차이에 근거하여 나타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겨울이 길고 추운 기후적 특성과 산악지대라는 지형적 특성, 그리고 水田농업보다는 旱田농업을 위주로 한다는 경제적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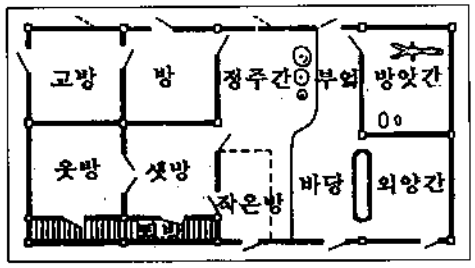

그림 3. 함경도 양통집의 평면구성

즉, 난방과 방어의 효율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주거내의 모든 공간들이 살림채 안에 배치되어 대부분의 주거생활이 건물내에서 이루어지는 한편, 散村型 취락구조에서 주거경계나 마당의 기밀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담장과 대문이 발달하지 않았다. 또한 외벽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겹집배열, 천정의 단열을 위한 고물반자의 설치, 경간이 길어짐에 따른 오량가구의 발달 등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특징의 주거유형을 남부지방의 유형과 대비시키기 위하여 필자는 '集中型 住居'라고 분류를 제안한 바가 있다.[28]

초기 이주민들은 이러한 건축적 지식과 전형을 가지고 장재촌에서 자신의 주거를 건설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비록 국경을 넘어서긴 했지만 기후적, 지형적 차이가 크지 않았고, 밭농사라고 하는 생업형태에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우기 정착의 과정에서 漢族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변동시킬 필요나 강제력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주거문화 또한 함경북도로부터 거의 완벽한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이주초기에는 거의 은신처

25) 대목 천봉진과 면담.

26) 장보웅 : 『한국의 민가연구』, 보진재출판사, 1981, 60-61쪽.

27) 리종묵 : 『우리나라 농촌주택에 관한 연구』, 과학원출판사, 1961, 56쪽.

28) 강영환 : 「삼척이남 동해안지역 전통민가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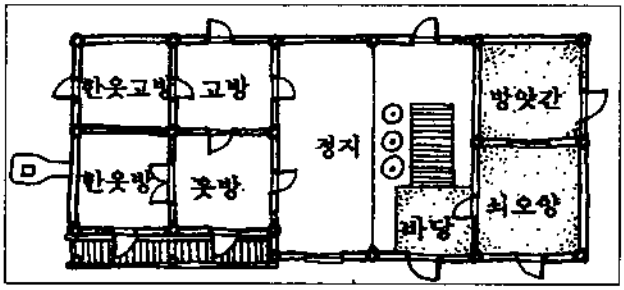

그림 4. 5. 장재촌 주택의 평면구성

나 다름이 없는 원초형 외통집들이 지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외통집은 물론 남부지방의 홑집과는 달리 부뚜막이 달린 '정지'(또는 정주간)를 취침공간으로 사용하는 함경도의 지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바당 1간, 정지 1간을 가진 것이 원초형이며, 식구가 늘거나 경제가 좋아짐에 따라 정지 옆으로 방 1간이 부가되거나, 바당 옆으로 '쇠오양'(외양간)이나 방앗간을 부가하여 3, 4간을 이루었다고 한다.[29]

어느정도 정착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안정되면서 이들은 함경도 지방의 전형인 양통집을 건설한 것으로 보여진다. 해방이전에 건립된 집의 살림채 평면을 보면 중앙에 부뚜막을 설치한 '정지'를 두고 한 쪽으로는 접으로 배열된 2간의 거주공간과 그 반대편에는 외양간이나 방앗간 등 생산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러한 집을 '육간집'이라 부르며 가장 보편적인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다.

경제력을 크게 축적한 주민의 일부는 부농·지주로 성장하였고, 이들은 자신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거의 계층성을 표현하게 된다. 늘어나는 생산시설, 머슴들의 거처, 대가족에 따른 공간수요 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살림채 외에 여러 부속채들이 필요하였고, 이를 둘러싸는 담장의 시설, 기와나 겹창과 같은 고급재료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주요생활무대인 살림채는 양통집으로서 함경도 지방의 전형적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팔간집'이라는 유형은 정지 옆으로 겹으로 배열된 거주공간이 4간일 뿐 '육간집'의 공간구성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集體化 時期 주거공간의 변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방 이후新中國이 성립되면서 장재촌도 공산화과정을 겪게 된다. 토지개혁으로 인한 부농·지주의 축출, 인민공사의 설립에 따른 집체적 영농과 생활, 그리고 문화혁명 중에 심화된 전통적 사회관계와 생활방식의 제재 등 외부로부터 강요된 사회적 변동에 의해 생활무대의 변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선 부농·지주의 축출에 따라 대규모의 주택이 해체되게 된다. 사회 평등주의 원칙에 따라 대규모의 주택들이 분할되고 주인이 바뀌는 한편, 私的인 경제활동이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생산 경리 시설로 건립되었던 부속채들이 존재의미를 잃게 된다.[30] 또한 대가족을 수용하던 대규모의 살림채와 공간의 분리가 무의미하게 되었다.

이 기간중에 생활무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큰 요소는 내부 간막이의 변화라고 생각된다. 과거에 방 사이에는 토벽과 작은 여닫이 판장문이 있어 가족관계에 따라 생활영역을 분리했었다. 그러나 사회변동에 따라 대가족제도가 해체되고 남녀평등이 강제됨으로써 폐쇄적인 간막이나 판장문이 필요없어진 것이다. 해방 이후 내부간막이가 미닫이 문으로 교체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29) 대목 천봉진과의 면담.

30) 리종순씨 집은 살림채 앞으로 연자방아를 시설했던 '초가사랑'과 머슴이 기거했던 '기와사랑'이 있었는데 해방이후 헐렸다고 한다. 김팔남씨 집은 본래 대지주 김영곤의 집이었는데 해방이후 '청산'을 맞아 주인이 바뀌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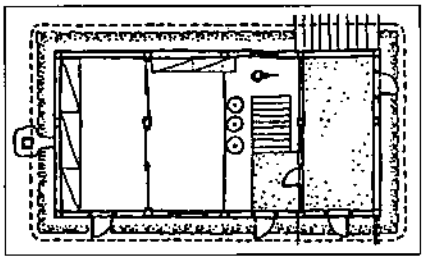

그림 6. 장재촌의 주택평면
(김동범, 1969년 건립)

그러나 (그림 6)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간막이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함경도의 양통집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이러한 공간구성은 여전히 중국민가(그림 7)[31]와 전혀 다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사회가 변동되었다고 해서 건축지식이나 건설방법에 급격한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에 주택의 생산은 주로 인민공사의 단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구성원도 결국 마을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신중국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방식의 주택건설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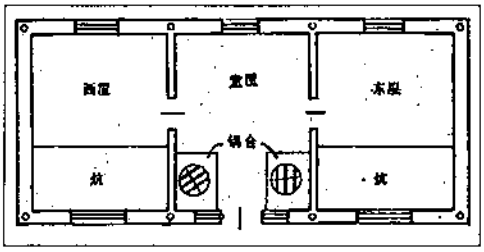

그림 7. 길림성 한족 민가의 평면

3) 개체 이후 주거공간의 변화

문화혁명이 실패로 끝나고 밀어닥친 개혁개방의 물결은 호도거리제 실시에 따르는 경제활동의 자유화 뿐만 아니라 농촌의 근대화, 그리고 전통적 생활양식의 복원을 수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동은 주택 형태만이 아니라 주거공간의 구성에서도 많은 변화를 야기시키게 된다. 우선 사적영농과 생산물의 사유화가 인정됨으로써 주거내에 많은 생산설비와 이를 수용하는 공간이 필요해졌다. 농기구를 수장하거나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부속채의 신축, 마당의 텃밭경영 등은 이러한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미 1960년대에 정미소가 설치되어 각 주거내의 방앗간이 필요없어졌고, 살림채내의 외양간도 냄새와 청결, 위생 등의 이유로 신축된 부속채로 옮겨 나오게 되었다.

한편 農村 近代化의 여파로 전기의 유입, 가전제품의 보급, 수도의 설치 등 주거설비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전통 목구조의 건축방법이 사라짐과 동시에 벽돌집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및 형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살림채 내부공간의 구성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1980년대 이후 신축된 주택의 평면에도 온돌의 정지를 비롯한 전통적 공간들이 동일한 명칭과 배열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집체 이후 교체된 내부 간막이가 미닫이로 잔존하고 있을 뿐이다. 주민들은 그 이유가 '넓고 시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집체 이후 단위가구가 부부가족으로 이행해 온 결과로서 핵가족하에서 공간분리가 크게 요구되지 않았고 새로운 가구를 수용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장재촌의 주택은 온돌의 정지와 방, 각 공간의 용도, 공간의 배열 등 생활무대 전반에 걸쳐 동일지역내의 중국주택과는 전혀 다른 조선족 특유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즉, 개체 이후 주거설비나 벽돌집으로 형태변화가 시도되고 있지만 이는 한국 농촌에서도 보여지는 근대화 과정일 뿐 중국문화로의 귀속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이러한 생활무대의 전통성은 그 무대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양식의 전통성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추정케 한다.

3-2. 주거공간의 이용

1) 생활중심영역으로서의 정지

장재촌의 주택내에서 가장 함경도의 지방적 특성을 보여주는 공간은 '정지'라고 볼 수 있다. '정지',

31) 장어환 : 「길림민거」, 중국건축공업출판사, 1958, 1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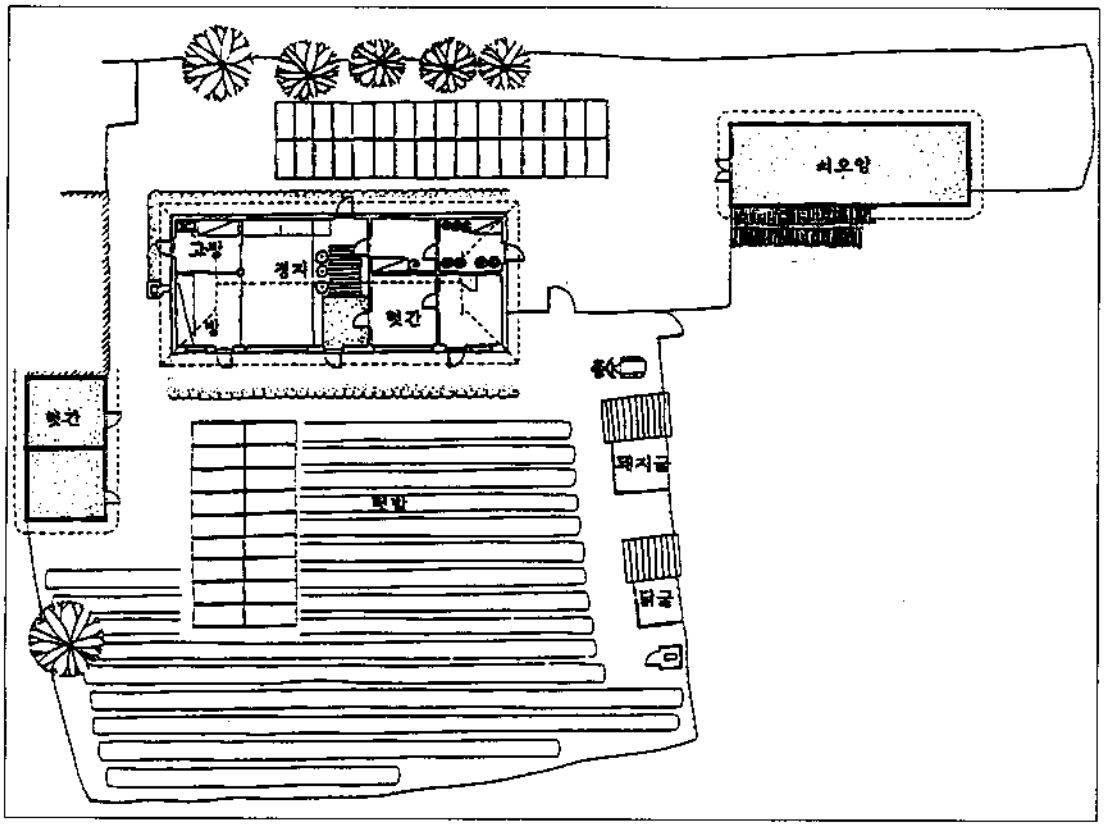

그림 8. 최근에 건립된 벽돌집의 배치평면도 (허룡범, 1990년 건립)

또는 '정지간'이라고도 부르는 이 공간은 출입공간으로서의 '바당'과 아궁이가 있는 '부스깽', 그리고 넓은 부뚜막처럼 온돌바닥이 있는 '구들'을 통칭하기도 하고, '구들'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여하튼 부엌과 간막이 없이 온돌의 기거공간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함경도 민가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바당'은 출입공간으로서의 바당과 아궁이가 있는 '부스깽'(부엌)으로 나뉘어진다. 정지는 주생활의 중심공간이며 정지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바당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바당은 건물로의 주출입공간이 된다. 바당과 정지 사이에는 단차이가 약 1尺 정도 있어 출입공간이자 신발을 벗는 장소가 된다. 부스깽의 단 차이는 더욱 높아 3尺 정도가 되며 이곳에서 난방과 취사를 겸한 아궁이에 불을 때는 작업공간이다. 아궁이에서 나오는 연기를 줄이고 취사공간을 넓히기 위해 얼마전부터 이곳에 널판을 설치하여 정지와의 단차이를 없앴다고 하는데, 근래에 이곳에 수도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취사공간을 확장하여 취사작업의 편리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생각된다.

'구들'(혹은 '정지간', '정지')이라고 부르는 이 공간은 흔히 '밥먹는 칸'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곳은 함경도집의 정주간처럼 취사 및 식사, 취침, 접객, 단락 등 복합기능의 거실로 이용된다. 다만 이곳의 주사용자는 主婦로서 다분히 여성적인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해방 이전까지 정지와 방사이에는 토벽과 판장문으로 구획되어 있었고 그 문을 '內外門'이라 하여 여자들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었다고 한다.

가마솥이 있는 부뚜막 쪽으로는 살강을 설치하여 '조왕간'이라고 불렀는데, 조왕은 부엌살림을 관장하는 家宅神으로서 해방 이전까지 家神信仰이 존속

했다는 증거가 된다. 이러한 살강은 해방 이후 전통의례가 배격됨과 아울러 규격품의 食器으로 대체되었다.

2) 남성영역으로서의 웃방과 한웃방

정지와 이웃하여 마당쪽(보통 남쪽)으로 배치되는 침실들은 오래 전부터 남성들의 영역이었다. 6간집에서는 하나의 침실을 두며, 8간집에서는 두개의 침실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침실을 '웃방'과 '한웃방', 또는 '아랫방'과 '웃방'이라고 부르는데, 6간집에서는 그냥 '방'으로 호칭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명칭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정지와 이웃한 순으로 웃방과 한웃방으로 부르기로 한다.

정지와 인접한 웃방은 '할아버지가 주장하는 간'으로 인식된다. 즉, 그 집의 가장이 기거하는 침실로서 정지와 대비되는 남성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남자손님의 접대는 반드시 이 방에서 이루어지고, 제사, 혼례로 이 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정지로 통하는 문을 닫아두고 여자들은 보통 고방을 통하여 출입하였다고 한다. 간막이 벽을 없앤 현재에도 家長이 이곳에서 취침하거나 손님을 맞는 일이 쉽게 목격되었으며, 자녀들이 사용할 경우에도 주로 아들이 사용하고 있어 생활공간의 남.녀분리가 아직도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웃방'의 상징성은 家庭儀禮時의 공간이용에서도 극명하게 보여진다. 혼례시 신부집에서 함을 받고 신랑의 상을 차리는 것도 웃방이며, 신랑 집에서 신부상을 받는 것도 웃방이다. 신혼부부가 신방을 차리는 곳도 웃방이며 3일 후에 고방으로 옮긴다고 한다. 장례시에 屍身을 안치하는 곳이나 제례시 젯상을 차리는 곳도 역시 웃방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정지를 통하지 않고 웃방문을 통하여 외부와 연결된다. 마당 쪽으로 툇마루가 설치되어 독립된 출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마치 남한지역 민가에서 보여지는 사랑방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웃방은 주거내에서 가장 위계가 높고 중심적인 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갖는 것이다.

'한웃방'은 8간집에서만 부가되는 침실로서 대가족하에서 젊은 家長이 기거하는 침실로 인식된다. 해방이전까지 부농층에서는 대가족 동거가 일반화되어 있었고 두세대의 부부가 동거하는 경우에 젊은 가장을 위한 거실이 제공되었던 것이다. 웃방과 더불어 남성적 영역을 이루면서도 長幼관계에 따른 공간분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핵가족이 보편적인 오늘날에는 이 방의 효용성이 감소됨으로써 가재도구를 보관하거나 아이들의 공부방으로 변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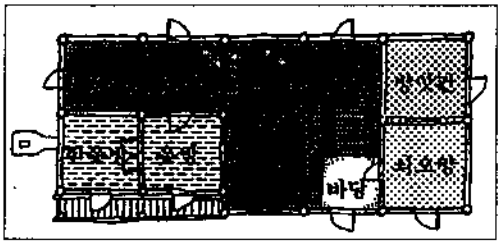

그림 9. 주거공간의 성별분리

* 남성영역 여성영역 생산영역

3) 여성영역으로서의 고방과 한웃고방

'고방'과 '한웃고방'은 정지와 함께 여성적인 영역으로 인식된다. 고방은 본래 곡식을 저장하는 장소라고 한다. 그러나 온돌이 설치되어 있어 침실로도 사용되었는데, 주로 장성한 딸들이 기거하였다고 한다. 여자와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깊숙한 안쪽(뒤안 쪽)으로 배치하였다고 한다. 바당과 정지를 통하지 않고는 진입할 수 없도록 동선과 출입구를 구성한 것도 이 방들의 방어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신혼부부도 신방이 끝난 후에는 고방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자녀들은 성장기 동안(약 15세) 정지에서 할머니와 기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8간집에서는 고방옆으로 한웃고방이 설치되어 보통 곡물수장 전용창고로 이용되었다. 대가족 하에서 신혼부부가 고방을 점유할 경우에 한웃고방은 未婚의 딸들이 거처하기도 했다고 한다. 따라서 간수의 증대가 대가족제도 하에서 침실의 분리와 실용도의 순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

다.

해방 이후핵가족으로의 변화와 농업생산력의 증대는 이러한 방의 용도를 변하게 한것으로 보인다. 즉, 대부분의 가족이 침실을 분리할 정도의 규모를 가지지 못하며, 곡물 또한 예전에 방앗간으로 사용되던 공간에 수장됨으로써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옷고방은 침실로 사용되는 예가 거의 없고 가재도구를 수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고방은 주로 장성한 딸들이 공부방 겸 침실로 사용하고 있어 여성적 영역의 성격이 유지되고 있다.

표 4. 취침공간의 이용 (단위 : 가구)

* 부부+자녀(모+녀,부부+녀,부부+유아,부부+자)

	부부	자	녀	자+녀	부모	부부+자녀
정지	49	6	·	1	8	43
방	7	35	6	8	3	5
고방	·	3	6	·	5	·

4) 생산영역으로서의 쇠오양과 방앗간, 사랑채

해방이전까지의 주택에서는 바당 옆으로 '쇠오양'과 '방앗간'등 생산공간이 자리했었다. 이렇게 생산과 관련한 공간을 살림채 안에 두는 것은 난방과 방어를 중시하는 集中型 住居의 특성으로서 한반도의 북부로부터 경북지방에 이르기 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남부지방에서도 산악지대에서 발견되곤 한다.[32] 정지의 熱源으로 이러한 공간을 난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쇠죽을 끓이는 연료를 난방으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방앗간은 1960년대 이후 마을 정미소의 설치로 기능이 소실되었고, 쇠오양은 '더럽고 냄새나고 파리·모기가 들끓기 때문에 사랑채로 나갔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한반도의 집중형 주거에서도 흔히 보여지는 것으로서 난방연료의 구입이 용이해진 결과라고 생각된다. 현재 이곳은 식료품이나 연료, 농가구 등을 수장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사랑채'라고 부르는 부속채는 주로 쇠오양이나 창고로 사용된다. 이러한 건물은 대부분 80년대 이후 지어진 것으로서 농가구나 비료, 곡물등을 수장하고 있다. 이 건물들은 대부분 거주자가 自力으로 지은 것이며 움막과 같이 가설건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家長의 거처로 사용되는 한반도 상류계층의 사랑채나 남부지방 민가의 아랫채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5) 텃밭으로서의 마당과 뒤안

장재촌 주택에서 마당의 이용은 대단히 독특하다. 남한지역과는 달리 거의 모든 외부공간이 생산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살림채로의 통로를 제외하고 마당의 대부분은 텃밭으로서 담배가 재배되고 있으며, 일부는 가축의 사육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가축들이 텃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목책담장으로 구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담장의 기능은 또한 집중형 주거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집중형 주거는 살림채내에 모든 주거공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마당의 효용성이 미약하고 따라서 담장과 대문이 부실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해방 이전 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집들이 담장이나 대문없이 살림채만 있었다고 한다.[33] 현재의 담장도 대부분 시야를 가리지 못하는 낮은 것(1.5m이하)들이고, 대문 또한 밖에서도 열 수 있는 형태여서 방어적 기능이 없다.

마당에 있는 특이한 시설로서 '김치굴'은 김장김치를 저장하는 지하창고이다. 사랑채 안이나 마당 한쪽에 깊이 2미터 정도의 지하창고를 파고 그곳에 김치독을 보관한다. 겨울에 영하 20°C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많기 때문에 얼지 않도록 김치굴을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김치는 조선족 식생활을 대표하는 음식으로서 식생활의 전통성 유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본래 뒤안은 살림채를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이었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뒤안은

32) 강영환, 앞책에서 동해안의 영덕 이북으로 집중형 주거가 분포됨을 밝혔다.

33) 대목 천봉진과 면담.

농사도구나 곡물을 수장하는 곳이기에 앞에는 울이 없어도 뒤안에는 울을 둘렀다고 한다. 현재는 뒤안마저 과일나무를 심거나 텃밭으로서 생산공간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옥수수를 저장하는 '옥시다락'이 있는 등 집중형 주거에서 수장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이용방식은 생활무대인 주거공간과 더불어 조선족의 전통성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온돌을 사용하는 좌식생활, 男女와 長幼관계에 따른 공간의 분리, 가정의례시의 공간이용 등 중국인과는 전혀 다른 조선족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근래에 들어 마당의 텃밭 이용, 축사와 창고의 신축, 내부 간막이벽의 철거와 미닫이 설치 등 다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는 중국문화로의 귀속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남한지역의 농촌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근대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추세라고 이해되는 것이다.[34]

3-3. 주거설비와 가재도구의 이용

1). 취침도구

조선족의 취침생활이 이불과 요를 사용하는 좌식생활이듯이 이러한 전통성은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이 마을에서도 침대를 사용하는 가구는 극히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취침도구를 수장하는 가구로서 과거에는 반닫이나 궤짝 등이 사용되었으나 '단스'라고 하는 옷장 겸용의 이불장이 얼마전부터 보급되어 중요한 가재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延吉의 가구공장에서 주로 제작하는 이 이불장들은 고급인 경우 화장대와 장식대를 갖춘 것으로서 대단히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35] 따라서 이 장의 구입과 전시는 경제력을 상징하게 되며, 주로 방(웃방, 아랫방)에 설치하고 있다.

2). 난방과 취사설비

난방은 아직 부엌 아궁이에 나무를 때어 구들을 덥히는 재래식 온돌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보일러가 설치된 집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직은 동네 근처의 야산에서 쉽게 땔감을 구할 수 있는 터에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땔감을 구하는 장소가 점차 멀어지고 있어 연료의 대체에 따른 난방방식의 변화가 쉽게 예상된다. 취사 역시 모든 家口가 아궁이와 가마솥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가스렌지와 전기곤로가 보급되어 부수적으로 사용되곤 한다. 해방 이전까지는 주로 2개의 가마솥을 사용했는데, 해방 이후연길시에 조선족 가마공장이 설립되어 대량생산하여[36] 공급함으로써 현재에는 대부분 3개의 가마솥을 설치하고 있다.

표 5. 취사설비의 사용빈도

아궁이	전기곤로	가스렌지	전기+가스
19	60	15	15

식사도 좌식밥상을 이용하며, 입식 식탁과 의자를 갖춘 집은 없었다. 해방전 까지는 규모가 작은 족상을 사용했는데, 그 이후 큰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이 작아 미닫이로 고쳤다고 한다. 식기와 반찬류를 수장하는 식장의 대량생산도 조선족 부엌설비의 공통성을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1950년대에 연길시 가구공장에서 제작된 식장이 작은 것은 너비 1미터, 두께 0.35 미터, 높이 1.1 미터이며, 큰 것은 각각 1.2, 0.4, 1.3 미터로 통일되어 연변지구 만이 아니라 전 중국의 조선족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37]

3). 급배수, 조명, 위생설비

34) 강영환 : 「한국 농촌주거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호』, 1987, 45-55쪽 참조.

35) 허씨의 경우 장식장 구입에 일년 소득의 1/4을 소비하였다.

36) 박경휘 : 『조선민속사연구』, 료녕민족출판사, 987, 223쪽.

37) 위책, 222-223쪽.

전기가 유입된 1970년대 이전까지는 마을에 있는 공동우물에서 물을 얻었다. 1970년대 이후 각 집마다 지하수를 개발하고 전기펌프를 설치하여 수도를 사용했다고 한다. 수도는 정지 안에 있어 집 밖에 나가지 않고도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배수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싱크대를 사용하기 어려우며 개수통에 물을 받아 집 앞의 텃밭이나 도랑에 버리고 있다. 전기유입에 따라 조명설비도 바뀌어 백열등이나 형광등 2-3개소를 설치하고 있다.

배수시설의 미비는 세탁기나 위생시설의 보급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여름에는 개울가에서 손빨래가 용이하지만 겨울에는 정지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물쓰기가 어려워진다. 겨울철 목욕 또한 대단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로서 가마솥에 물을 데워 정지에서 이루어진다. 변소는 독립건물로서 보통 돼지굴 주변에 두며, 수거식이다.

표 6. 가재도구 보유현황과 보유장소 (단위 : 대)

	정지	방	고방	마당	창고 (헛간)
라 디 오	37	51			
텔레비젼	38	49	1		
자 전 거				31	16
식 탁	90	3	2		1
가스렌지	37	1			
의 자	3	39	6		
책 상	3	12	1		
세 탁 기	5				
녹 음 기		1			

4) 위락과 학습도구

주거내에서 여가를 즐기는 위락시설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단연 라디오와 텔레비젼라고 할 수 있다. 인문조사표에 응답된 것만 보아도 이것들의 보급율은 80%를 넘고 있다. 가전제품들은 방이나 정지에 놓여지는데, 정지와 방사이의 간막이가 없기 때문에 방에 두어도 가족 모두가 즐기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웃방이 점차 아이들의 공부방이 되어가기 때문에 학습용 책상과 의자를 둔 경우가 많으며 젊은 계층에서의 문화시설 욕구가 높은 탓에 라디오와 텔레비젼이 그 방에 설치되기도 한다.

표 7. 희망가재도구 (단위 : 대)

		1순위	2순위	3순위	계
T.V	T.V	7	3		10
	COLOR T.V	2			2
세 탁 기		38	7	4	49
냉 장 고		1	3	1	5
녹 음 기		7	12		19
녹 상 기		1			1
가 스 렌 지		9	1		10
자 전 거			7		7

5) 희망 가재도구

이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가재도구를 순위별로 조사한 것이 (표 7)이다. 이 표에서 1순위로 나타난 것은 세탁기로서 동절기 세탁의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재도구의 소유실태로 볼 때 이는 라디오나 텔레비젼 등의 보급이 이미 일반화된 이후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2순위로서 뜻밖에도 녹음기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녹음기는 스피커가 달린 카세트 테잎 레코더로서 음악을 듣기 위한 것이다. 주민들은 잔치 때마다 녹음기의 소리와 함께 歌舞를 즐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녹음기는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가무를 즐기는 민족성이 녹음기의 소유욕구로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3순위로서 가스렌지의 요구는 매 식사 때 마다 투여되는 가열작업

외 노동을 줄이려는 욕구를 반영한다. 또한 취사 때마다 불필요하게 이루어지는 난방을 취사와 분리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다.

이와같이 주거설비와 가재도구 또한 생활방식의 민족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불과 요를 사용하는 취침생활, 이불장의 사용, 아궁이를 통한 온돌난방, 취사설비로서의 가마솥과 좌식밥상, 식장의 사용에 이르기 까지 조선족만의 설비나 가재도구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일부의 주거설비는 급속하게 근대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전기의 유입으로 인한 전기조명 및 전기펌프를 이용한 수도의 설치 등이 일반화 되었고, 열원의 대체로 전기 및 석유곤로, 가스랜지 등 취사설비의 고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주거설비 및 가재도구의 근대화는 경제력의 성장과 더불어 가사노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화도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활방식의 획기적 변화가 없는 한 文化的 正體性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결론

長財村은 중국 길림성 연변지구에 속하는 농촌마을로서 18세기 말 한반도의 함경북도로부터 조선족의 이주와 정착에 의해 형성되었고, 현재까지 순수한 조선족 마을로 지속되어 왔다. 이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1993년 현지조사된 현재의 주민들의 사회 · 경제적 성격과 생활무대 및 생활방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家口의 구성 및 생업형태

直系家族단위의 家口에서 4인 이하 夫婦家族단위의 家口로 변화하고 있으며, 경제작물(주로 담배)의 재배를 통하여 소득을 얻는 專業農家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의 가계소득은 연변평균을 훨씬 상회하여 부촌으로 인식되고 있다.

2) 생활무대와 이용방식

이들의 주택은 해방 이전에 건립된 木造架構式 전통주택과 해방 이후에 건립된 벽돌집이 혼재하고 있으나 그 공간구성은 함경도의 양통집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온돌의 '정지'를 주생활무대로 사용하는 좌식생활이 지속되고 있으며, 거주공간의 성별분리가 잔존하고, '웃방'을 중심으로 혼례, 상례, 제례 등 가정의례가 이루어진다. 외부공간으로서의 마당은 텃밭이 만들어져 생산공간화되며, 주거내부에 있던 생산공간들이 부속채의 신축으로 분리되고 있다.

3) 주거설비와 가재도구

재래식 가마솥과 좌식밥상을 사용하는 취사생활, 이불과 요를 사용하는 취침생활, 화목을 사용하는 재래식 아궁이의 온돌난방 방식은 이주 이후변화하지 않는 지속성을 보여준다. 해방 이후 전기와 가스의 보급으로 전기펌프를 이용한 수도의 설치, 가스렌지와 전기곤로의 보급, 전등을 이용한 조명설비 등 주거설비의 고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비디오 등의 보급과 구입으로 위락시설의 고급화 추세 및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와같은 현재의 주거 및 생활양상은 이주 이후 중국의 사회적 변동과 더불어 변화되어 온 결과로 생각된다. 이들의 주거문화가 이주시기로부터 어떠한 변화과정을 겪어 왔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기별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해방 이전

19세기 말 移住期로부터 해방시기까지 한반도 주생활문화의 완벽한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해방 이전에 건립된 주거는 集中型의 양통집으로서 평면형태나 공간구성, 주거시설 등에서 한반도(특히 함경북도)의 생활무대와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 이러한 생활무대의 同質性만이 아니라 그것의 사용방식 또한 거의 일치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지'를 주생활무대로 하는 좌식생활, 정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난방과 취사생활, 男女, 長幼관계에 따른 취침공간의 분리, 가정의례시의 공간사용, 살림채 내의 생산공간 배치 등은 同地域의 중국인과는 다른 조선족 고유의 전통적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민족적 생활문화의 전통성이 유지될 수 있었던 까닭은 移住地의 生態環境에 큰 차이가 없었고, 문화변동을 유발하는 사회적 제약이 비교적 미약했으며, 마을구성원이 순수 조선족으로 타 민족과 접촉할 기회가 비교적 적었다는데 기인했다고 생각된다.

2) 해방 이후

新中國이 성립된 1950년대부터 불어닥친 사회.경제적 변동은 住居文化를 변질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토지개혁으로 富農 · 地主들이 축출되면서 청산과정을 통해 대규모 주택의 해체가 이루어졌고, 集體的 생산과 생활방식에 따라 개별 주택내에 생산과 관련한 공간들이 그 기능을 잃게 된다. 또한 文化革命으로 전통적 가족제도와 가정의례 및 격식이 배격되면서 이와 관련한 생활행위들이 사라지는 한편 男女, 長幼에 따른 공간구분도 미약해졌다. 살림채 내부의 간막이 벽이 미닫이로 교체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변동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기간중에도 생활양식의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기에 온돌을 이용한 座式生活이나 취사, 취침생활의 전통성은 유지될 수 있었다. 또한 새로운 양식의 주거가 도입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생활양식이나 주거양식의 中國化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3) 개혁·개방이후

개혁·개방 이후 個體營農으로 인한 경제력의 회복과 사회통제의 해제는 주거문화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復元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한편 近代化로 이행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가족중심의 주거생활이 복원되었으며, 전통적 생활양식으로서의 가정의례도 대부분 부활되었다. 생산과 관련한 부속채의 건립이 활성화되는 한편, 외부공간의 생산공간화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경제력의 급속한 회복과 전기유입에 따라 가전제품의 사용, 취사, 조명, 급수등의 주거시설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신축된 주택의 공간구성이나 공간사용 방식에서 보여지듯이 함경도 양통집의 골간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각 공간의 기능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핵가족으로의 이행에 따라 간막이벽의 철거와 미닫이로의 교체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中國文化로의 歸屬이라기 보다는 조선족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근대화의 보편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상과 같이 장채촌의 사례를 통해 본 연변지구 조선족의 농촌주거와 생활문화는 이질 생태계와 이질 문화집단, 그리고 여러 번의 사회변동에도 불구하고 한반도(특히 함경도)의 전통주거문화를 유지하면서 근대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이민에 의해 이질문화 집단에 소속된다하여도 유사한 생태환경이 주어질 경우 한국주거문화의 정체성이 강한 적응력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향후 평안도의 영향을 받았던 압록강 유역이나 또는 경상도 주민이 많이 이주한 흑룡강성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지역주거문화의 전이과정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 민족과 접촉이 강한 도시에서의 주거상황이 조사·비교됨으로써 한민족 주거문화의 정체성과 가변성 및 현대적 적응성을 명료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리종목 : 『우리나라 농촌주택에 관한 연구』, 과학원 출판사, 1961.
박경휘 : 『조선 민속사연구』, 료녕 민족출판사, 1987.
한상복·권태환 : 『중국 연변의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장보웅 : 『한국의 민가연구』, 보진재출판사, 1981.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집필소조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연변인민출판사, 1984..
김광언 :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88.
張馭寰 : 『吉林民居』, 중국건축공업출판사, 1958.
이채진 : 『중국안의 조선족』, 청계연구소, 1988.
김숙련 외 2인 『중국 연변』, 김영사, 1991.
심혜숙 : 『중국 조선족 취락지명과 인구분포』, 연변대학 출판사, 1992.
강영환 : 『삼척이남 동해안지역 전통민가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9.
강영환 : 『집의 사회사』, 웅진출판사, 1992.
강영환 : 『한국 농촌주거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권 6호, 1987.

The Dwelling Spaces and Life Style of Ch'ang-ts'ai-ts'un Village

A Case Study on a Rural Village of Korean Immugrants in Yen-pien of China

Kang, Young Hwan
(University of Ulsan, Associate Professor)

ABSTRCT

This paper is a part of "A Case Study on The Dwellings and Settlment of Korean Immigrants to North-Eastern Province of China". Among various subjects from the study, this paper covers with the spaces and life style in the dwellings of Korean Immigra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ribe how their dwelling culture has been moved and changed to a new environment.

One rural village of Korean Immigrants named "Ch'ang-ts'ai" in Yen-pien Province was selected where we investigated more than 110 households. From the formal interview, I collect the data on the family structure, family economic state, dwelling spaces and its use, and dwelling facillities and furniture. From informal interview with key informants, I analyze how they have changed their dwelling spaces and life style since they moved her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data, I conclude that major features of their dwelling and life style has been moved from Korean penninsula, specially from 'Hamkyong' Province where their ancestor has lived. This features are summarized as follows:

a. Dwelling spaces and its functions are simillar to typical dwelling type of Hamkyong Province.
b. They use "Chong-ji" for both a cooking space and a major living space.
c. They have a life style of sitting on the floor.
d. Bedrooms are differentiated with male and female.
e. Most of their dwelling facillities and furniture are different from those of Chinese in the same province.

Since they immigrated, there has been some social changes which could influence on making their dwelling culture. But they have preserved their cultural identity on their dwellings and life style. So I suggest that the dwelling culture of a society would be seldom changed by immigration, as long as they will be given similar conditions such as the independent ethnic community, the same ecosystem, and economical autonomy.